

재래농촌주택의 계승 및 개선의 측면에서 본 농촌 고령1인·부부가구 주거에 관한 연구

- 안동 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ousing for the Aged Living Alone and Living with Spouse Only in Rural Areas with Reference to the Succession and Improvement of the Traditional Rural Housing

- Cases of the Rural Housing in Andong City

배정인*

Bae, Jeong-In

片野 博**

Katano, Hiroshi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more efficient way of improving the housing conditions, by reviewing the existing improvement programs for the traditional rural housing and by aiming at finding advantages to inherit and correcting the inconvenience of the traditional forms of housing, through a survey on the housing conditions of the aged living alone and living with spouse only in the traditional rural housing.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openness and buffering zone of the traditional rural housing are relevant housing elements which provide the aged appropriate living space and therefore should be actively inherited and that the existing improvement programs have been largely inappropriate. But as the aged can hardly practice the appropriate way of improvement on their own, government policy consideration is urgently needed as part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Keywords : Korean Traditional Rural Housing, Housing for the Aged Living Alone and Living with Spouse Only

주요어 : 재래농촌주택, 고령1인·부부가구 주거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노부부만이 거주하거나 고령자 혼자 거주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도시보다 농촌이 더욱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유형의 가구를 통칭하는 용어로 '노인 단독 가구'가 종종 사용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령1인·부부가구'로 부르기로 한다. '단독'이라는 용어는 어휘상으로는 혼자라는 의미를 지니며, 이는 1인가구의 개념과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에서 1인가구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1990년까지는 '단독가구'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에서는 1인가구의 의미로 단독세대(單獨世帯)라는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기도 하다. '노인'이라는 용어의 사용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인구

주택 총조사보고서에서 사용하는 공식적 용어가 '고령자'이며, 혼자 사는 경우는 '1인 가구', 부부만이 사는 경우는 '부부가구'로 지칭함을 고려할 때, '노인단독가구'보다는 '고령1인·부부가구'라고 하는 편이 보다 정확한 명칭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2000년도의 65세 이상의 총인구 중에 고령1인·부부가구수가 점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33.1%로 일본의 31.3%보다도 더 높은 수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는 25.0%, 농촌은 40.2%로 고령자끼리만 거주하는 비율이 도시보다 농촌이 매우 높다¹⁾.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전되어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제반 재가노인복지 제도가 우리보다 앞서 정비되어 있는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고령1인·부부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농촌의 고령1인·부부가구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안동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 일본 큐슈슈우대학 대학원 환경계획부 교수

1)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인구주택 총조사(2000), 일본의 데이터는 國勢調査(2000)에 의거 산출한 수치임

선행연구에 의하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밝혀졌는데²⁾, 본 연구는 주거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서, 농촌 고령1인·부부가구에게 적합한 주거계획요소를, 새마을운동 이전의 전통적주거인 재래농촌주택의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오랜 세월 동안 경험적으로 축적된 농촌 고령자에게 적합한 계획적 측면의 형태요소가 재래농촌주택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 재래농촌주택의 거주자의 대다수가 고령1인·부부가구라는 점³⁾에서 지속적인 거주를 지지하기 위한 실태파악의 필요성이 크며, 셋째, 농촌주택의 전통적 형태의 계승은 농촌의 경관보존을 통한 농촌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근본적인 명제인 전통의 현대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의 모색이라는 점 등에서 그 연구의 의의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시점의 연구가 그다지 이루어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래농촌주택은 노후하여 사라져가고 있기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연구를 해두어야만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 거처 공간의 개방성은 고령자주거에 적합한 계획요소로서, 古賀紀江, 高橋鷹志(1997) 橋弘志, 高橋鷹志(1999)등의 연구에 의해 제시된 개념을 본고에서 발전시킨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재래농촌주택은 이 주 거처 공간의 개방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의 주 거처공간에서의 주관적 개방도와 요구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 주 거처공간의 개방성에 대한 고령자의 요구도가 높고, 재래농촌주택의 주관적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개방성이 재래농촌주택에서 계승 발전시킬 장점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 거처 공간 바깥의 완충공간은 근린교류를 촉진시키는 요소로서, 嚴平, 橫山俊祐(2002), 李하얀, 谷口元(2003)등의 연구에 의해서도 그 효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그러므로 고령자 주거로서 적합한 장점으로써 재래농촌주택에 있는 주 거처 공간 바깥의 완충공간에 주목하여 이의 유무와 사용여부를 조사하고자 한다.

셋째, 재래농촌주택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대상이었던 주거시설인 난방시설, 온수목욕시설, 수세식화장실, 입식 부엌에 관해 실태를 조사하고 금후의 개선방향을 고찰한다.

넷째, 고령자의 지속적인 거주를 지지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령자의 거주기간과 이주 희망도를 조사하여 정주성향을 확인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재래농촌주택에 관한 선행연구의 시점

본 연구의 실태파악의 개념적 틀은 다음과 같다. 재래주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현재 상태의 좋은 점을 파악하여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측면이며, 또 하나는 현재 상태의 좋지 않은 점을 파악하여 그것을 고쳐 개선하는 측면이다. 좋은 점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고칠 점에만 집착하게 될 경우, 미처 뚜렷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좋은 점을 개선의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잃어버리게 될 우려가 있으며 단점을 파악하지 않고 장점만을 취한다면 개선의 효과가 미흡할 것이다.

재래농촌주택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는 크게 세 가지 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새마을운동이 대표하는 것과 같이 재래농촌주택을 그 비합리적 형태를 개량해야하는 대상으로 보는 시점이다. “새마을운동의 농촌 표준 설계도는 근대화된 농촌주택을 보급하고자하는 정부의 정책과 전통적인 농촌주택이 갖는 불편함을 수정하여 대안으로 제시된 것”⁴⁾이었다. 그 결과 불편한 점이 다소개선 된 것은 사실이나, 장단점을 함께 파악하기보다는 단점의 개선에 주목한 것으로서, 그 개선 과정에서 이미 장점이 도태될 위험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더욱이 그 개선 방향은 농촌 고유의 환경에 맞는 형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적 형태를 지향하는 경향이 다분히 잠재되어 있었다⁵⁾.

둘째, 재래농촌주택에 대한 비합리성 여부의 판단은 유보하고 현상을 존중하는 시점으로서, 농촌 주거의 변화 과정을 추적 조사하여 보고하는 경우이다(정건채·김갑득, 2003; 최장순, 2001; 황종현·김현석·김상겸, 2001; 진정·신범식, 2000; 엄인섭, 1999; 최장순·최찬환, 1999). 그 변화과정에서 재래농촌주택형태가 소멸되고, 도시주택과 유사한 형태가 유입된 것이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고

2) 폴란트(1984)는 주거환경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최혜경(1984)은 고령자의 주거생활이 생활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고, 김태현, 서승희(1987)도 같은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정영숙, 한성덕, 박춘선(1999)은 대구 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서 주거환경과 주거생활이 다른 영역에 비해 고령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정영숙의 연구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고령자의 삶의 질에 주거의 기여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주거가 고령자의 삶의 질과 관련이 깊은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3) 이인수, 오인완(1998)은 재래농촌주택 거주자의 80% 이상이 고령1인·부부가구임을 밝혔다.

4) 전호상, 이상해(2001), 농촌근대화과정에서 70년대 새마을운동의 농촌표준주택 설계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21권1호, p.304

5) 전호상, 이상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궁극적으로 낙후된 농촌의 주거생활을 도시생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내면에 잠재되어 있었으며, 농촌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막연한 도시형 양육을 출세나 성공을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잘사는 것의 상징으로 여겼다.” (전계서 p. 302)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대략 다음 세 가지로 나뉜다. 즉, 도시적 형태의 도입에 대해 이를 주생활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 도시적형태가 농촌생활에는 비 기능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주거형태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의 변화에 따른 주거형태의 비 기능적 변화의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관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려를 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들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농촌 주민의 주생활의 변화에 대응한 필연적인 변화, 형태가 기능보다는 사회적의미를 따르는 경우가 있는 현실 등을 존중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상을 존중하는 시점의 연구는,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연구이긴 하나, 그 연구의 주목적은 현재의 상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보다는 현재의 충실한 파악에 있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셋째, 재래농촌주택의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시점이다. 이인수, 오인완(1998)은 고령자의 주거로서 재래농촌주택은 생활하기에 불편한 부정적 측면도 있으나, 고령자의 존재가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 가치는 “가족 구성원이 그 가옥의 구조, 공간배치를 통하여 적절한 보상을 주고받으며 가족이 추구하는 전통과 사상의 상징성을 유지”⁶⁾할 때 지속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바뀌어도 유지되는 보편적인 가치는 아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주택의 개별적인 개선 시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기는 하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주거형태를 모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절한 가치는 아니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재래농촌주택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파악하여, 상징적인 의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체적 형태와 관련지어 단점을 개선할 뿐만이 아니라 장점을 파악하여 계승발전 시키어 농촌 고유의 환경에 맞는 고령자 주거로서의 바람직한 주거계획요소를 도출하고자하는 시점의 선행연구는 없었다.

2. 주 거처공간의 개방성

고령자가 주로 머무는 주거 내의 장소에 관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는 片岡正喜, 鈴木義弘, 中武啓至(1994)에 의한 연구로서, 부부가구와 3세대가구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고령자에게 주생활거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이후 古賀紀江, 高橋鷹志(1997)는 고령 1인가구의 주생활 분석을 통하여 상좌(常座)라는 개념을 도출해 냈다. 상좌는 집안에서 취침 이외의 시간에 고령자가 주로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주거계획 시에 이 장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점에서의 계획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상

좌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중시되는 요소는 바깥이 잘 보여 외부의 환경을 상좌에서 직접 지각할 수 있는 것과 현관이 잘 보여 방문객의 출입을 상좌에서 감지하기 쉬운 것 등이었다.

또한 橋弘志, 高橋鷹志(1999)는 주거공간의 질은 주거의 내부공간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며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고령자가 주거 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거 장소(居場所)로 명명하고 거 장소에서의 외부환경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진입방향과 외부정보입수 방향의 일치 즉 진입방향에 대한 주호의 개방성, 시각적 청각적 외부 정보 입수의 질과 양, 즉 거 장소에서 외부와의 관계를 갖기 쉬운 면에서 아파트보다 전통적 일본주거가 고령자 주거로서 적절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에 의해 고령자가 주거 내에 주로 거처하는 장소가 있으며, 이 장소의 개방성 여부가 고령자 주거로서 중요한 요구 조건 중의 하나이고, 이 장소에 개방성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바깥이 잘 보이는 것, 바깥의 소리가 잘 들리는 것 특히 집 안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것, 방문객의 동태를 감지하기 쉬운 것 등이 있음이 드러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각기 시각적 개방성, 실내외의 대화가능성, 방문객 감지용이성으로 부르고, 고령자가 주거 내에서 주로 거처하는 장소를 주 거처공간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개방성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주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전통적 재래농촌주택은 일본의 연구에서 개방성의 요건으로 지적된 것 외에 출입의 용이성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전통적 주택보다 뛰어나다. 일본의 전통적 주택은 방에서 직접 외부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거나, 우리나라의 재래농촌주택은 방에서 외부공간으로 나갈 때에 또 다른 내부공간을 경유하지 않고 대부분 텃마루나 축을 통하여 마당으로 직접 내려설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중간적 성격의 마루만 지나면 바로 마당으로 내려설 수 있다. 방 안에서 외부 공간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부담이 적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출입의 용이성은 노화에 의한 심신의 기능감퇴로 외출이 어려워지기 쉬운 고령자들이 집안에 칩거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이다.

竹内孝仁(1999)에 의하면, 집안에 칩거하여 외출하지 않고 누워만 지내는 고령자들 중에 그다지 큰 병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新開省二(2000)는 고령자의 칩거현상이 단지 연령이나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만 관계있는 것은 아니며, 주거환경과도 관계가 깊다고 했다. 王靑, 筧淳夫, 長澤泰(2001)는 고령자의 칩거현상과 생활영역과의 관계를 환경심리행태학적 시점에서 조사 연구하여 칩거현상이 반드시 장애의 정도와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며 외출하기 어려운 주거형태가 강한 영향을 미치고

6) 이인수, 오인완(1998)), 노인거주 재래농가의 주거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3권 2호, p. 5

있음을 밝혔다. 井上由起子, 小龍一正, 大原一興(2002)은 개택간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령자의 주거를 조사한 결과, 출입의 용이성, 방문객에의 응대편리, 집밖 정보의 입수용이 등 때문에 현관 가까운 곳에 고령자의 침대를 놓거나 이불을 깔아두어 현관에서 가장 먼 곳에 침실을 두는 관례를 켜 다수의 사례가 있다고 보고하여, 출입의 용이성을 포함한 개방성이 일본의 전통적인 관례보다도 고령자주거 요구조건으로서의 우위에 있는 경우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일본의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주거거처공간에서의 출입용이성은 고령자 주거로서 매우 중요한 요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재래농촌주택이 지니고 있는 주 거처공간에서의 시각적 개방성, 실내외의 대화가능성, 방문객 감지용이성, 출입용이성은 고령자의 주거로서 적절한 장점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본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 속성을 합하여 주 거처공간의 개방성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주 거처공간의 개방성이 거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주거 내에 있을 때 심리적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점, 즉 개별적인 주생활의 질을 높이는 측면이다. 또 하나는 이웃과의 상호교류를 촉진시키는 측면이다. 고령자에게 있어서 이웃교류의 중요성을 지적한 연구, 주거형태와 이웃교류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정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문희정·김미희(2004)는 광주광역시 고령1인·부부가구의 조사연구에서, 생리적 유지에 대한 요구도 다음으로 사회적 용이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이 드러나, 행동의 용이성이나 지적적 유지에 대한 요구도보다 사회적 용이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밝혔는데, 사회적 용이성 차원에서는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다고 하였고, 배진희(2004)는 순창군의 고령자조사연구에서 이웃의 도구적 지원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밝혀, 도시와 농촌고령자 모두에게 이웃과의 교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입증했다. 일본에서도 嚴平, 橫山俊祐(2001)는 고령자 상호간의 이웃 교류가 공적인 사회적 지원과 상호보완하면서 고령자 삶의 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명백히 했다.

정영숙(1996)은 도시와 농어촌의 비교 연구에서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에 비해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밝혔는데, 이는 여타 변인도 관계있겠지만, 농어촌 전통적 주택의 개방성과 관련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엄인섭, 김종인(1991)은 생활의 옥내완결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평면구성을 도시주택처럼 콤팩트화 한 농촌주택에 비하여 재래농촌주택이 이웃관계 면에서 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즉, 이웃과의 교류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의 향상과 관계가 깊으며, 개방적 형태의 주거는 주거 내에서의 심리적 개방감 외에도 이웃과의 교류촉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 주거로서 매우 중요

한 요건 중의 하나이며 전통적인 재래농촌주택의 장점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계획요소라고 할 수 있다.

鈴木成分, 三上晴久(1997)는 본래 개방적이던 일본의 전통적 주거가 폐쇄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근린관계가 소원해지는 악순환에 빠짐을 지적하여 이웃관계에 미치는 주거의 개방적 형태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더 이상 늦기 전에 고령자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형태요소인 재래농촌주택의 개방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촌주택의 변화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도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주 거처 공간 바깥의 완충 공간

주 거처공간의 개방성 이외에 이웃과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주거환경형태에 관한 연구 중에 사적 공간 바깥의 체류공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 嚴平, 橫山俊祐(2002)는 일본의 고령자 전용 공영주택인 실버하우징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근린교류의 촉진을 위해서는 개방적인 주거형태 이외에도 다양한 체류공간을 출입구 근처에 마련할 필요가 크다고 하였다. 李하얀, 谷口元(2003)은 한국과 일본의 고령자거주시설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 개실 바깥이 사적 공간에서 공적공간에 이르기까지 다단계에 걸친 위계가 있는 공간구조로 되어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개실 바깥에서의 체류시간이 길어지며 입소자 간의 교류가 증진 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大島秀明, 天野克也, 谷口澁邦(2003)는 고령자의 외출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 외출 시에 걸터앉을 곳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외출 행동이 촉진되고 외출 시간이 길어짐을 입증하여, 신체적 기능의 저하에 따라 외부공간에서도 걸터앉을 수 있는 것을 고령자들이 선호하는 것을 명백히 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외부 사회와의 교류가 원활히 일어나도록 하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유효한 고령자 거주 환경형태에 관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즉, 주 거처공간에 들어가는 출입구 바깥의 공간이,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걸터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고령자가 주 거처공간의 밖으로 나가 그 곳에 머물기 쉽고, 방 안에서 서보다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외부 사회와 교류하기 쉬울 것임을 알 수 있다. 재래농촌주택의 마루, 툇마루, 축 등은 바로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공간을 완충공간으로 지칭한다. 비슷한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로 전이공간이 있다. 그러나 이는 대개의 경우 시간적 축을 중시하며 따라서 신동규(2003)는 진입과정에 거치는 모든 공간, 즉 통과 공간과 목적 공간을 포함하여 전이공간이라 지칭하기도 했고, 또한 정주대, 이선구(2000)처럼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중간적 성격이 없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중간적 성격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전이공간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공과 사, 외부와 내부의 중간적 성격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께 중시하는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하겠다.

4. 재래농촌주택의 주거시설

본 연구에서 재래농촌주택의 개선해야할 단점을 주거 시설 측면에서 고찰하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거 시설은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사해온 항목이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주택개선의 기본적인 방향 중의 하나였다.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전국 면부의 2000년도 기름·가스·전기보일러는 89.6%, 온수목욕시설은 74.1%, 수세식화장실은 58.2%, 입식부엌은 87.5%로⁷⁾, 이미 상당부분 그 개선이 진전된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개선 방법의 적절성 여부를 이제는 재검토해야만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구주택 총 조사의 조사 대상 주거시설은 난방시설의 종류와 목욕시설, 수세식화장실, 부엌의 입식 화, 상수도 시설의 유무인데, 그 중 상수도 시설은 개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주거시설의 개선 실태에 관해 거주자의 만족도 및 추후 개선의 방향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I. 조사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 고령자의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하였다. 고령자에 관한 연구 중에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고령자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도 있으나,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노년부양비, 노령화 지수 등 각종 지표에서의 고령자 연령 기준이 65세 이상이며, 본 연구의 목적상 고령자의 연령기준을 굳이 60세 이상으로 해야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주거유형은 재래농촌주택과 개량 형 농촌주택으로 했다. 현재의 농촌주거형태는 최장순(2001)에 의하면 전통적인 '재래농촌주택'과 1980년대 후반 이후 정부의 지도를 받지 않고 거주자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은 농촌주택으로 대개 도시 단독주택과 유사한 형태요소가 많은 '농촌자조주택', 그리고 1976년 이후의 새마을운동의 표준설계도면에 의한 '농촌개량주택', 재래농촌주택을 증개축한 '개량 형 농촌주택'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개량 형 농촌주택은 재래농촌주택을 개량한 것이므로, 원형과의 비교도 가능하면서 계승과 개선의 방법 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안동의 농촌지역으로 하였

다. 안동을 조사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조사의 편이를 위한 것과 함께, 전반적으로 전통적 주택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므로 재래농촌주택과 개량 형 농촌주택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행정 구역상으로 시군이 통합된 안동시의 농촌 지역 중, 구 안동 시 지역 즉 시가지화한 지역에서 먼 지역과 가까운 지역, 산악지역과 평야지역이 포함되도록 하면서 동서남북의 4개 지역이 포함되도록 고려하고, 재래농촌주택 및 개량 형 농촌주택이 다수 남아 있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현지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청의 주택개선담당자에게 의뢰하여 동부는 임하면과 임동면, 서부는 풍산읍, 남부는 길안면, 북부는 도산면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추천받았다.

각 면의 조사 대상 가구는, 면사무소의 담당자의 추천으로 재래농촌주택 및 개량 형 농촌주택이 다수 남아 있는 마을의 이장을 소개받고, 이장에게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의 추천을 부탁하되, 경상북도 면부의 고령1인·부부가구의 연령대별 고령자 구성비율과 성비에 가능한 한 근접하도록 추천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동부 18가구, 서부 16가구, 남부 17가구, 북부 14가구의 총 65가구 106인을 소개받아 조사했다. 그 중 1인가구는 24가구, 부부가구는 41가구였는데, 부부가구 중 65세 미만인 배우자가 5인 있어서 이를 제외한 65가구 101인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조사절차는 사전 현지조사, 예비조사, 본조사로 이루어졌다. 2004년 11월에 3회에 걸친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세운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고령자의 의식을 개방적 질문법에 의해 심층 파악하여 연구문제의 현실성을 검증하고 주거실태를 관찰하여 조사도구 작성에 참고 되는 정보를 얻었으며, 작성된 설문지에 의한 예비조사를 2005년 2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하여 질문문항을 검토 수정한 후, 최종 결정된 설문지에 의한 본 조사를 2005년 2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와 실내 가구집기의 위치를 포함한 주거형태 조사를 병행하였다. 연구자를 포함한 두 명의 조사원이 방문 조사하여 가구당 약 한 시간에 걸쳐 평면채취 및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자가 기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조사도구에 포함된 내용 중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은 일반적 특성 및 이주희망에 관한 8문항, 주 거처공간의 개방성에 관한 12문항, 주 거처공간 바깥의 완충공간에 관한 6문항, 난방방식에 관한 27문항, 욕실에 관한 12문항, 화장실에 관한 14문항, 부엌에 관한 10문항, ADL에 관한 6문항 등 총 95문항이다.

주 거처공간의 개방성에 관한 문항은, 시각적 개방성,

7) 이 데이터는 면부의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수치로 면부의 고령자를 따로 집계한 데이터는 없으나, 전국의 데이터로는 고령자 전 연령 평균보다는 개선비율이 다소 낮으므로 면부의 경우도 다소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내외의 대화가능성, 방문객 감지용이성, 출입용이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각각 ‘매우 그렇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 4점 Likert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이후 모든 설문문항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속성에 대하여 고령자가 느끼는 주관적 개방성의 정도를 합한 것을 개방도로 부르며, 네 가지 속성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합한 것을 요구도로 부르기로 한다. 그러므로 주관적개방도 및 요구도는 4점에서 16점까지의 범주에 있다.

수집된 설문조사자료는 SPSS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t-test, 상관관계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채취된 주택평면과 사진 자료를 종합 분석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이주 희망도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3.5세이며, 65-69세가 35.6%, 70-79세가 46.6%, 80세 이상이 17.8%였다. 이 중 남성은 42.6% 여성은 57.4%이었다⁸⁾.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서의 평균 거주기간은 55.0년이고 현 주거에서의 평균 거주기간은 42.8년이었다. 마을 거주기간이 40년 미만인 경우는 10.9%밖에 안 되어 태어난 고향 혹은 시집은 마을에서 계속 거주해 온 경우가 대다수로서, 정주성향이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급후의 건강 악화 시까지도 고려한 경우의 이주희망도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이주희망에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는 11.9%(매우 그렇다; 6.9%, 약간 그렇다; 5.0%), 부정적으로 답한 경우는 88.1%(매우 그렇지 않다; 76.2%, 별로 그렇지 않다; 11.9%)로 고령자의 강한 정주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령자의 ADL과 이주희망도와와의 피어슨상관관계 분석에서 건강상태와 이주희망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농촌의 고령1인·부부가구를 위한 주거문제 대책으로서 이주를 전제로 하는 대책보다는 거주하던 마을에서의 일반주택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본 연구의 시점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2. 개방성

조사대상 고령자 중 개량을 하지 않은 주거 즉 재래 농촌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10.9%로 대부분 개량형 농촌주택에서 살고 있었으며, 평균 주거개량 시기는 14.0년 전이었다. 주거시설의 개량 외에 평면까지 변형된 사례 중, 개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형으로서, 주 거처공간의 출입문 바깥의 공간을 확장하고 샷쉬 등을 설치하여 내부공간화한 경우가 21.8%이었다. 이러한 변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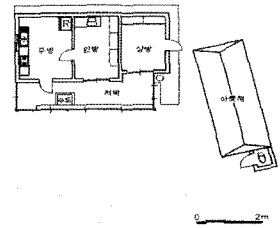


그림 1. 비개방형의 예

를 앞으로 비개방형으로 부르겠다<그림 1>. 그 외에는 평면의 변화는 없거나, 변화가 있더라도 주 거처공간의 후면이나 측면의 변화이거나, 혹은 전면을 확장하더라도 샷쉬는 달지 않아 주 거처공간의 전면의 개방성은 유지되는 형태인데, 이를 개방형으로 부르겠다.

개방형과 비개방형의 고령자의 주 거처공간에서의 주관적개방도를 t-test 한 결과, 비개방형이 개방형에 비해 평균값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p < .001$), 개방형이 비개방형에 비해 개방도가 뛰어난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사 대상 고령자가 경험한 도시주택의 주관적개방도와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재래농촌주택 및 개량형 농촌주택의 주관적개방도⁹⁾를 t-test 한 결과, 도시주택이 재래농촌주택 및 개량형 농촌주택에 비해 평균값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p < .001$) 재래농촌주택 및 개량형 농촌주택이 개방도가 뛰어난이 확인되었다<표 1 참조>. 또한, 네 가지의 개방성에 대한 고령자의 요구도 조사결과는 평균 4.04점으로 나타나 요구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네 가지 측면의 개방성이 재래 농촌주택에서 계승 발전시킬 장점 중의 하나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개방형은 전통적 형태 그대로인 경우와 확장 개조를 하되 개방성이 유지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후 개조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전통개방형, 개조 확장하였으나 개방성은 유지된 경우를 확장개방형

표 1. 고령자 주 거처공간에서의 개방도 차이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t값
개방형, 비개방형의 개방도 차이	개방형	79	4.49	1.48	6.22***
	비개방형	22	7.81	2.38	
농촌주택, 도시주택의 개방도 차이	재래농촌주택 및 개량형 농촌주택	98	5.26	2.21	17.68***
	고령자가 경험한 도시주택	98	11.49	2.86	

*** $p < .001$

9) 조사대상 고령자가 도시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을 경우는 그 주택에서의 주관적 개방도를 조사했고, 거주 경험이 없는 경우는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나 친인척의 주택에 체재했을 당시에 느꼈던 주관적 개방도를 조사했다. 참고로 고령자가 경험한 도시주택의 유형과 체재기간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가 57.4%, 단독주택이 28.7%, 다세대주택이 10.9%이며, 체재기간은 1개월 이내가 74.2%, 3개월 이상이 11.9%, 2~3개월이 10.9%였다.

8) 200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의한 경상북도 면부의 고령1인·부부가구의 연령대별 구성비율은 65-69세 41.6%, 70-79세 47.8%, 80세 이상 10.6%, 남성 42.7% 여성 57.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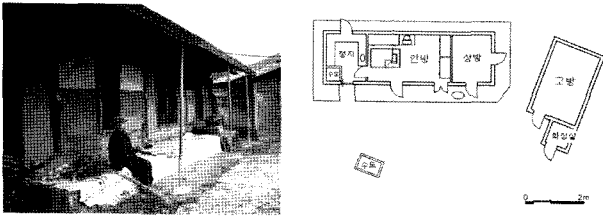


그림 2. 전통개방형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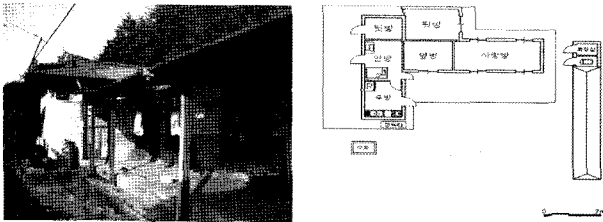


그림 3. 확장개방형의 예

으로 부르겠다<그림 2,3>. 전통개방형과 확장개방형의 주관적개방도를 t-test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확장한 경우에도 개방성은 전통적인 경우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전통개방형은 이 지역 재래농촌주택의 특징 중의 하나인 축을 확장하지 않은 형태이다. 축은 이 지역에서 기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통적으로 기단의 높이를 걸터앉기 적절한 정도로 하여 뒷마루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바닥 재료는 전통적으로는 황토 흙이나 요즘은 대개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른 위에 비닐 장판 등을 까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 거처공간의 개방감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채광 통풍이 양호하다.

확장개방형은 축을 확장하여 처막으로 달아낸 경우이다. 처막을 달아내고 그 밑의 축을 확장한 형태를 지역 주민들은 처막으로 부르고 있었다. 바닥은 대부분 시멘트몰탈 마감 후 비닐장판이나 돗자리를 깔고 있다. 이 경우는 개방감은 유지되나, 주 거처공간의 채광 통풍은 지나치게 깊은 처막으로 인하여 매우 불리하다. 확장하는 이유는 집을 넓게 쓰기 위한 것이나, 고령1인·부부가구의 경우 넓은 공간이 사실상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다.

비개방형은 처막에 샷쉬를 달아 내부공간화한 것이다.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은 호루로 부르고 있었는데 이는 영어의 홀(Hall)의 일본식 발음으로 추정된다. 호루는 겨울철 온실효과를 주기는 하나, 이로 인해 주 거처공간의 개방성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많이 약화되며 채광 통풍도 불리해진다. 주 거처 공간의 개방성을 되찾기 위해 단열성능은 떨어지지만, 호루에 바닥 난방 시설을 하고 주 거처공간을 아예 호루로 옮긴 사례도 있는데, 이는 주 거처공간의 개방성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라 하겠다.

그러므로 주 거처공간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난방효

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주택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높다고 본다. 벽체와 개구부의 단열성능을 높이면 개방성은 유지하면서도 난방효율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완충 공간

조사대상 고령자 중 축, 처막, 뒷마루, 마루 등의 완충 공간으로 쓰일 수 있는 공간이 주거 내에 있는 경우는 72.3%였다. 완충 공간으로 쓰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고령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바닥마감재 상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축의 경우는 기단이므로 신을 신고 다니는 외부 공간 중의 하나이고 그 기능도 마당에서 실내에 들어가는 통과 공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것이나, 이 지역의 경우는 그 곳이 통과 공간일 뿐만 아니라 머무는 공간, 걸터앉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마감재가 내부공간용의 마감재인지 여부가 좋은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완충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공간 중 83.6%가 비닐장판 등의 내부공간용 바닥 마감재로 처리하고 있어서<그림 2 참조>,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완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여름에는 축에서 잠잔다고 한 고령자까지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의 축의 활용은 다양했다. 조사시기가 겨울이었는데도 축에서 햇볕을 쬐이며 허드렛일을 하는 고령자도 다수 있었다. 이러한 완충공간은 우리나라의 기후조건 상, 동절기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측되기는 하지만 그 밖의 시기에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거형태요소로서 기능할 것으로 추측되며, 재래농촌주택의 완충공간은 적극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4. 주거시설

1) 난방시설

재래 난방시설을 개선하여 석유보일러를 설치한 고령자가 77.2%, 심야전기보일러로 개조한 고령자가 3.0%이었고, 나머지 19.8%는 나무나 연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80%이상이 석유나 전기에 의한 난방으로 개선된 상태로서 그 개선 비율이 양호한 상태로 보이나, 실제 사용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심야전기인 경우는 전기료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아 심야전기보일러 시설을 늘 사용하고 있었으나, 석유의 경우는 비용이 부담이 되어 명절에 자녀들이 모두 모였을 때는 석유보일러를 가동하지만, 평소에는 사용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나무나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령자들이 석유 값에 느끼는 부담의 정도는 평균 1.16으로 매우 높았다. 사용비용 부담 도를 묻는 문항은 ‘매우 그렇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 4점 Likert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 척도는 다른 주거시설의 사용비용부담도 및 만족도를 묻는 모든 문항에서도 동일하다.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고령자가 평소 거처하는 방을 난방 하는 연료를 기준으로 하여 재분류하면, 나무 55.4%, 석유 26.7%, 연탄 14.9%, 심야전기보일러 3%였다<표 2,3 참조>. 또한 고령자의 평소 거처방을 석유보일러로 난방 하는 경우에도 보일러가 열지 않을 정도로만 가동하고 있는 경우가 석유로 난방 하는 총 27사례 중 13사례였다. 설문조사 시기가 겨울이었는데, 고령자들은 배관 내의 물이 얼어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보일러를 가동시켜, 조사를 위해 방문한 연구자가 방안에서 코트를 입은 채로 면접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추웠다. 즉, 명목상으로는 조사대상 고령자의 77.2%가 석유보일러로 개조한 것으로 집계되지만, 석유보일러를 고령자의 거처방의 난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는 26.7%이며, 난방의 본래의 목적대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 석유보일러를 사용하는 고령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13.9%로 연탄으로 난방 하는 비율인 14.9%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연탄으로 난방 하는 경우는 상당히 따뜻하여 대부분의 경우 동네 고령자들이 겨울철에 낮에 모여 노는 집이 되어 있었다.

표 2. 난방시설 보유 현황

	석유 보일러	심야 전기보일러	기타(연탄 및 재래식 난방시설만 있는 경우)	계
빈도	78	3	20	101
백분율	77.2	3.0	19.8	100

표 3. 일상적 사용 난방연료 현황

	나무	석유	연탄	심야전기	계
빈도	56	27	15	3	101
백분율	55.4	26.7	14.9	3.0	100

그러므로 지금까지 석유보일러 위주로 난방시설을 개선해왔던 것이, 사실은 적합한 개선방향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석유보일러로 개조하는 것은 억제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조비용은 개조비용대로 쓰면서도 고령자는 춥고 불편한 겨울을 보내야할 것이다. 앞으로 난방시설을 개선하고자 희망한 사례는 13사례이었는데, 금후의 개선방향으로 고령자 자신들이 현실성을 감안하여 희망

한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석유보일러를 연탄보일러,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로 개조하는 것이 각각6사례, 4사례, 1사례였고, 재래식 나무아궁이를 연탄보일러로 개조하는 것이 2사례였다.

2) 욕실

조사대상 고령자 중 주거 내에 온수가 나오는 욕실이 있는 경우는 68.3%였다. 온수욕실이 없는 경우 온수욕실로 개선하고 싶은 희망 정도는 매우 그렇다가 56.3%, 약간 그렇다가 15.6%로 함께 71.9%가 희망하고 있었으나, 이미 온수 욕실이 있는 경우의 만족도 평균은 2.72로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욕실 시설이 있더라도 실제로 욕실로서 활용하는 정도도 낮았다. 계절과 관계없이 언제나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온수욕실이 있는 경우의 23.2%밖에 안 되었으며 나머지는 여름철이나 자녀들이 왔을 때에만 사용하고 있었다. 온수를 사용하는 비용의 부담감의 정도는 평균 1.42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욕실의 단열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는 평균 3.70으로 매우 불만족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주거 중 욕실 바닥에 온수 난방배관을 하고, 벽의 외부에 스티로폼을 부착한 주거가 있었는데, 이 사례만 단열에 대해 매우 만족으로 응답했다. 대부분의 욕실은 과거의 창고와 같은 개념의 공간에 욕조와 온수급수전을 설치한 것뿐이었다.

즉, 욕실 시설을 원하는 고령자는 많으나, 기존에 개선된 욕실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도는 낮아, 기존 개선 방향이 적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온수를 만드는 비용을 경감시키고, 욕실의 단열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화장실

주거 내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는 14.9%였다.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 언제나 수세식 화장실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53.3%였으며, 나머지는 수세식화장실이 있어도 재래식과 병용하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수세식화장실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재래식 화장실이 익숙하고 비료로 쓸 수 있으며 경제적이라는 이유 등이었으며, 수세식 화장실 자체에 대한 만족 정도는 평균 1.47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사용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는 평균 2.80으로 별로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수세

표 4. 욕실·화장실·부엌

	개선사례					비개선사례			
	만족도 (욕실단열만족도)	사용비용 부담도	항상사용함	항상 사용하지 않음	계	개선희망	개선비희망	계	
온수욕실	2.72(3.70)	1.42	빈도	16	53	69	23	9	32
			백분율	23.2	76.8	100	71.9	28.1	100
수세식화장실	1.47	2.80	빈도	8	7	15	44	42	86
			백분율	53.3	46.7	100	51.1	48.9	100
입식부엌	1.57	3.83	빈도	88	2	90	8	3	11
			백분율	97.8	2.2	100	72.7	27.3	100

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고 싶다고 응답한 고령자는 매우 그렇다 43.0%, 약간 그렇다 8.1% 합계 51.1%였다. 신체능력은 감퇴되었지만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 재래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고령자들의 불편은 매우 극심했는데, 손으로 바닥을 짚어야만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화장실 바닥을 짚는다고 한 고령자도 있었다.

수세식화장실의 전국 변부 평균 보급률이 58.2%인 것과 비교할 때에 조사대상의 14.9%밖에 수세식화장실이 없어 보급률이 매우 낮은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보급률 자체가 낮아 기존 개선 방향의 공과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단열이 안 되어 변기 물이 얼어 겨울철 사용이 불가능한 사례, 관습상 실내에 화장실을 두기를 꺼려 실외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신체능력이 감퇴되었을 때 매우 불편해 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실내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은 고령자들의 신체적 능력의 감퇴와 함께 앞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은 자명하나 고령자들의 힘만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으므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4) 부엌

주거 내에 입식 부엌이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가 89.1%였다. 입식으로 개선한 경우의 만족 정도는 평균 1.57로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었으며 사용비용의 부담감은 3.83으로 거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개선한 시설의 활용 정도는 97.8%가 언제나 사용하고 있어 입식 부엌의 기존 개선 방향은 고령자들에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입식 부엌의 35.6%가 단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 개선 희망 사항을 자유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젊었을 때는 잘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바닥 높이 차이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고 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연령의 증가와 함께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재래농촌주택과 개량형 농촌주택에 거주하는 농촌의 고령1인·부부가구의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재래농촌주택에서 계승 발전시켜야 할 주거계획요소를 추출하고, 기존의 주거시설 개선방법을 재검토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선방법을 찾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 도에 대한 고령자의 요구가 컸으며, 개방형이 비개방형에 비해, 조사대상 농촌주택이 도시주택에 비해 고령자가 느끼는 주관적개방도가 높게 나타나 재래농촌주택의 개방성이 고령1인·부부가구고령자주거로 적합한 주거계획요소로서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임이 입증되었다.

둘째, 재래농촌주택의 완충공간은 개량형 농촌주택에도 다수 잔존하고 있었으며 고령자들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하절기에 적합한 전통적 주거공간인 완충공간의 계승 발전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주거시설의 기존개선방법의 불합리한 점들이 밝혀졌다. 석유보일러 위주였던 기존의 난방시설개선은 연료비의 지나친 부담으로 인해 그 활용도가 극히 낮았으며, 고령자들은 석유보일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나무를 때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농촌 고령자주거의 주 난방 방식은 고령자들이 경제성을 감안하여 희망하는 대로 연탄과 나무사용으로 계속 후퇴할 것이다. 욕실은 단열의 미흡함과 석유보일러에 의한 온수공급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활용도가 매우 낮아 역시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세식 화장실은 전국 평균보다 그 보급률이 현저히 낮아 기존 개선방법의 공과를 말하기 어려우나, 단열이 안 된 실외의 수세식 화장실의 경우 문제가 많음이 드러났다. 입식부엌은 그 활용도와 만족도에서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 기존 개선방향에 큰 무리는 없는 듯하나, 바닥의 단차해소가 남은 과제이다.

그러나, 고령자의 자력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고령자복지지원에서 지금까지보다 더욱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다음 몇 가지 점에 중점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개방도가 높으면서 주 거처공간의 채광 통풍이 양호하며, 주 거처 공간 밖에 완충공간이 있는 전통개방형의 장점을 계승하면서, 벽과 개구부의 단열성을 강화한 주택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령1인·부부가구를 위하여 농촌 주택을 개보수 및 신축할 경우 도시주택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기보다는 농촌고령자에게 적합한 형태로 계획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정보를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난방시설은 석유보일러로 개조하는 것은 극력 피해야하며, 유지비용이 적은 심야전기보일러로 개조하는 것을 정부가 지금까지보다 적극적으로 보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욕실은 단열을 보강하고 비효율적인 난방시설과는 별도의 경제적인 급탕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

넷째, 수세식화장실은 고령자가 가기 쉬운 실내에 단열을 고려해 설치해야 하며, 입식부엌은 바닥단차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안동시청의 주택개선사업을 담당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참 고 문 헌

1. 강병근(1999),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주거 유형,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5권 10호, pp.3-14

2. 김양이(2004), 농촌노인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23권, pp.203-229
3. 김태현·서승희(1987), 노인의 주거환경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7권, pp.77-92
4. 김학삼·진정(1994), 농촌주거의 취수, 난방에 따른 공간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계획계, 14권 2호, pp.97-100
5. 김행신(1998), 노인주거의 지원성 계획을 위한 주 요구 연구-노인단독가구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4권 10호, pp.47-54
6. 문희정·김미희(2004), 재가노인 단독세대의 실내디자인 지원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권 4호, pp.65-74
7. 박광희·한혜경(2002),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연구, 11권, pp.43-61
8. 배진희(2004), 농촌지역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사회복지정책, 20권, pp.197-216
9. 서태홍·진정(1998), 도시근교 농촌주택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8권 2호, pp.551-556
10. 신동규(2003), 진입과 전이 공간 특성에 따른 단독주택 평면유형 변화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4권 4호, pp.39-48
11. 엄인섭(1999), 농촌주택의 공간이용 및 형태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권 8호, pp. 49-57
12. 엄인섭·김종인(1991), 농촌주민의 주생활공간평가(II),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1권 20호, pp.59-62
13. 윤복자 외6인(1990), 농촌지역 노인의 생활실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권 4호, pp.65-86
14. 윤주현(2005),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주거정책의 방향 및 과제, 국토연구원, 280권, pp.45-53
15. 이정화·한경혜(2003),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13권 1호, pp.209-238
16. 이정화·한경혜·박공주·이한기(2003),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지원망 특성이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 9권 3호, pp.1-7
17. 이연숙·박정아·오찬옥(1994), 노인단독가구의 환경적 지원성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14권 1호, pp.84-94
18. 이인수·오인완(1998), 노인거주 재래농가의 주거 공간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권 2호, pp.1-16
19. 이지숙(2004), 대전시 거주 노인이 선호하는 주거 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6호, pp.59-66
20. 이형실(2003), 농촌 노인의 세대간 사회적 지원 교환과 생활만족 : 성별 및 연령집단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권 4호, pp.57-69
21. 전호상·이상해(2001), 농촌 근대화 과정에서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농촌표준주택 설계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계획계, 21권 1호, pp.301-304
22. 정건채·김갑득(2003), 마을 유형에서 본 농촌주거의 구조 유형과 주 공간형식의 변화양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9권 2호, pp.11-18
23. 정영숙(1995), 지역별 주거만족도와 생활환경만족도, 한국주거학회지, 6권 2호, pp.113-121
24. 정영숙·한성덕·박충선(1999), 주거만족도와 노년의 삶의 질, 소비문화연구, 2권 1호, pp.85-99
25. 정주대·이선구(2000), 공동주택단지의 전이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계획계, 20권 2호, pp.31-34
26. 진정·신범식(2000), 도시근교 농촌주택의 건축적 특징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 16권 10호, pp.61-70
27. 최명규(2000),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6권 9호, pp.29-38
28. 최장순·최찬환(1999), 농촌개량주택의 주거 공간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권 11호, pp.119-132
29. 최장순(2001), 영동지역 농촌주택의 유형과 주거 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7권 9호, pp.55-62
30. 최혜경(1984),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31. 허병이(1996), 노인의 제특성에 따른 주거 환경 계획 인자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7권 2호, pp.79-89
32. 황중현·김현석·김상겸(2001), 농촌주택 안채의 평면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1권 2호, pp.23-26
33. Stephen M. Golant(1984). The effect of residential and activity behaviors on old people's environmental experiences. In I. Altman, M. P. Lawton, & J. Wohlwill(Eds.), *Elderly People and the Environment*. pp.239-278. New York: Plenum.
34. 片岡正喜·鈴木義弘·中武啓至(1994), 住生活據點の存在確認と據點のとられ方, 日本建築學會計畫系論文集, 460號, pp.71-80
35. 古賀紀江·高橋鷹志(1997), 一人暮らしの高齢者の常座をめぐる考察, 日本建築學會計畫系論文集, 494號, pp.97-104
36. 鈴木成分·三上晴久(1997), 現代日本住居の開放性, 閉鎖性に關する動向と課題, 住宅總合研究財團研究, 24號, pp.187-196
37. 橋弘志·高橋鷹志(1999), 一人暮らしの高齢者の生活における住戸内外の關わりに關する考察, 日本建築學會計畫系論文集, 515號, pp.113-119
38. 竹内孝仁(1999), 介護保險時代における地域保健の課題, 公衆衛生, 63卷, 9號, pp.42-48
39. 新開省二(2000), 閉じこもり高齢者checklistの作成とその活用法, 健康度評價の手法の開発などに關する研究會資料
40. 嚴平·橫山俊祐(2001), Silver Housingにおける支援の仕組みと特性, 日本建築學會計畫系論文集, 542號, pp.121-128
41. 王青·寬淳夫·長澤泰(2001), 在宅療養高齢者の生活領域に關する考察, 日本建築學會計畫系論文集, 546號, pp. 91-96
42. 嚴平·橫山俊祐(2002), Silver Housingにおける近隣交流の特性と空間的課題, 日本建築學會計畫系論文集, 554號, pp.109-116
43. 井上由起子·小龍一正·大原一興(2002), 在宅Serviceを活用する高齢者のすまいに關する考察, 日本建築學會計畫系論文集, 556號, pp.137-143
44. 大島秀明·天野克也·谷口澁邦(2003), 高齢者の外出行動と座りスペース利用に關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計畫系論文集, 563號, pp.171-177
45. 李하얀·谷口元(2003), 高齢者居住施設における生活單位の一括分散と共用空間の滞在行為に關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計畫系論文集, 572號, pp.25-32

(接受: 2005. 8. 8)